

SK, 소록도병원 환자 지원금 전달

SK는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신헌철 사장과 사단법인 참길복지 이재우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필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센병(나병) 환자 지원금 1억원 전달식을 열었다.

SK가 전달한 기금은 소록도병원 환자 치료를 위한 자동목욕기, 침대형 휠체어 구입과 생활비를 비롯해 2-3세를 위한 학자금으로 쓰인다.

신헌철 SK 사장은 “전체 한센병 환자의 90% 가량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복지법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업이 앞장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6/13>